



진안군의회, 사회복지시설 사랑나눔 실천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는 최근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물품을 전달하는 등 사랑나눔을 실시했다. 이번 위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의회는 백운면 소재의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환마실과 상전면 소재의 가나안나눔터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하여 시설 운영에 필요한 라면, 제철과일, 세제, 휴지 등 물품을 전달했다. 김민규 의장은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봉사하고 계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진안군의회도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에 더욱더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안군의회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방문한 2개소 외에 진안 초초의 집 등 4개소에는 시설 관계자에게 온정이 담긴 위문품을 전달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국립발레단 · 익산예술의전당, 꿈나무 교실 수익기부

국립발레단과 익산예술의전당이 함께 추진한 공익사업 '국립발레단 꿈나무 교실 발레 갈라 Fly Higher with KNB'의 수익금 300여만원을 전액 기부하며 새해 따뜻한 소식을 전했다. '국립발레단 꿈나무 교실'은 익산지역 초등학교 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2회씩 국립발레단 출신 흥우연 강사가 안무·지도를 맡아 발레 기본기를 배우고 작품 연습을 진행했다. 그 결과로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발레 꿈나무들의 첫 무대 '드림 플라'와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 '돈키호테', '빈사의 백조' 등 클래식 발레와 모던 발레 작품의 갈라 무대로 다채롭게 꾸며졌다. 국립발레단 관계자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국립발레단과 익산예술의전당이 힘을 모아 공연까지 안전하게 마무리 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며 "공연의 티켓 판매 수익금은 익산시에 소재한 장애인 보호시설에 기부해 '꿈나무 교실'의 취지에 의미를 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장수소방서, '불조심 재강조의 날' 운영

장수소방서(서장 최경천)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운영한 데 이어 지난 19일부터 이날 말까지 1·19 불조심 재강조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계절적 특성으로 화기 및 난방용품 사용량이 많아 화재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추진되는 불조심 재강조의 날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 동안 지속적인 화재예방 홍보를 전개해 범국민적인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 겨울철 화재 경각심 고취를 위해 추진되며, 주요 추진과제는 △인문매체 및 SNS 등을 활용한 집중 홍보 △안전 취약계층, 기관 협력을 통한 소방안전교육 추진 △안전 문화 행사 및 캠페인 전개 등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공동교육과정 개발 · 운영 '협력'

군산대-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업무협약 체결

국립군산대학교는 최근 군산대학교 본부 소회의실에서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긴밀한 유대관계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 이호근 교무처장, 엄기욱 학생처장, 오정근 기획처장, 고석인 대외협력본부장과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의 이창열 학장, 박한주 교학처장, 김법중 행정처장, 김종민 교학처 차장이 참석했다. 협약의 골자는 △2+2, 4+1 교육프로그램 등 공동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혁신적 교수 및 학습법 공동 연구 △우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공유 △지역발전 및 상생을 위한 공동 연구 등이다. 이장호 총장은 "양교가 가진 강점을 통해 사회와 기업에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한다면 매우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두 대학이 협력하여 하나의 성공사례를 만들어내면, 이 성공사례가 좋은 본보기가 되어 우리나라 전체에 큰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창열 학장은 "군산대학교의 탁월한 교육역량과 한



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의 탄탄한 실무역량이 합쳐져 좋은 성과가 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약속한 사항들이 성실하게 이행되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자"고 말했다. 군산대학교는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외에도 군장대학교, 전주기전대학 등 인근 대학과 창의융합형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생교류를 위한 협약을 맺고,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나가고 있다. /군산=김관근 기자

진안군, 사회복지시설 · 공무원 결연 가정 방문 위로

진안군은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전 공무원 결연가정 방문을 실시했다. 전춘성 군수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9개소를 방문해 입소자들을 위로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꾸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됐다. 또한 전춘성 군수와 김종필 부군수를 비롯한 진안군 전 공무원들은 소외이웃과 1대1 결연을 맺고, 결연 가정을 방문해 안부 확인 및 위문품 전달식을 가지며 이웃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했다. 전춘성 군수는 "모두가 들뜨는 명절이아말로 주변의 이웃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며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행복한 명절이 되도록 촘촘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소방서 주생의용소방대, 희망 나눔캠페인 동참

남원소방서 주생의용소방대(대장 나정수, 박정숙)는 최근 설 명절을 맞아 주생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관내 소외계층에게 성금 50만원을 기부하는 동시에 주생초등학교에 장학금 2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 및 장학금은 대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마련

하였으며, 주생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선정된 관내 소외계층 불우이웃과 독거노인을 위해 쓰여진다. 나정수, 박정숙 대장은 "설 명절에는 외로움이 평소보다 크게 느껴져 독거노인들에게는 더욱 힘든 시간으로 다가올 수 있다. 큰 성금은 아닐지라도 주변의 이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마음이 전달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세아베스틸, 군산시에 백미 10kg 650포 기탁

군산시는 최근 (주)세아베스틸(대표이사 김철희, 신상호)이 백미 10kg 650포(1,625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달된 성품은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전 임직원의 급여 결전 및 희망 나눔 모금액과 회사의 기부금으로 마련되었으며,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돼 도움이 필요한 지역 내 어려운 이웃 및 사회복지시설·단체 등에 지원될 계획이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염성근 노조위원장은 "회사와 사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마련한 성품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져 명절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오병길 지원본부장은 "직원들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따뜻한 설명절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해마다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주)세아베스틸의 소중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 시에서도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복지 도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관근 기자



소재실 남원소방서장, 현장대원과 소통 나서

소재실 남원소방서장은 최근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수고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초도방문에 나섰다. 이번 일정을 통해 식장·인원·금지119안전센터와 구조대, 5개의 지역대를 방문하여 주요 업무계획 및 당면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전입직원들의 업무적응에 어려움을 없는지를 살피고 현장활동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며 심도있는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모든 일에는 시민 안전을, 중요한 일에는 다양성을, 어려운 일에는 단합을'이라는 북부지침을 강조하여 신뢰받는 소방조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소재실 남원소방서장은 "위험하고 고된 현장에서 활동하는 출동대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한다. 안전을 넘어 안심의 남원 실현을 위해 각 소방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사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6-2404 남원지사 632-0395 정읍지사 536-3767
호지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63-0444 장수지사 010-3882-6157
익산지사 668-9823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고령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